

# 교통 사망자 '제로화' 도전

###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충 · 단속 강화 시내 주요도로 제한속도 50 · 이면도로 30km/h로 하향

익산시가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정책을 추진해 사망자 '제로화'에 도전한다.

도심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이를 지역사회의 정착시키는 등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먼저,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41곳 77대, 교통신호기 12대를 오는 202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19억7천만원이 확보됐으며 초등학교 23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5대, 교통신호기 12대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 도전한다.

또한, 익산시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서 운영한다.

이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표시 도색 등 시설물 보강공사를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내용이며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왕로 익산대로, 동서로, 선화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50km/h로 운영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등은 30km/h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속도표지판을 교체하고 노면 속도제한 표시 도색 등 교통 안전시설을 변경해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4곳을 선정해 '마을주민보호구역'을 조성한다. 예산은 13억원이 투입되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월성동과 삼기면 금마면, 춘포면 등이며 지방도와 인접한 마을 도로구간을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요소 파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도와 도로교통공단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도로 미끄럼 방지, 노후 차선도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구역을 확대해 관리한다.

정현을 시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도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익산시 청년창업농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 익산시,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익산시는 청년창업농 선발자들이 지역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익산시 청년창업농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 19로 연기했던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모니터링단은 황만길 전/지역농업연구원장, 박귀열 전/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김진용 4H본부 사무국장, 김대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청년위원장, 권효순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 선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무이행사

항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을 진행 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선정된 청년창업농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단 위원들이 정착 노하우를 소개하며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청년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청년창업농 조직화 논의를 통해 각 기수별로 서금식(1기), 황승현(2기), 이태희(3기)를 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전체 여성 청년창업농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유재명 대표를 별도 선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기념 포토존' 호응

군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내 새롭게 조성된 민원센터에 '군산 기념 포토존'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포토존에는 무인 셀프 촬영기가 설치돼 출생과 결혼 등 특별한 날을 기념 할 수 있는 축하 문구가 표기된 배경화면으로 사진을 찍은 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사진작가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고군산군도, 청암산, 은파유원지, 경암동 칠길마을 등의 군산시의 대표 관광지 이미지 60여개를 등록해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배경사진을 직접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존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출력과 핸드폰이나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야외수영장·물놀이장 개장

강도 높은 방역 규정 속에 이용할 수 있는 군산지역 야외수영장이 24일~8월 30일, 문화센터물놀이장이 오는 25일~8월 23일 개장한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야외수영장과 문화센터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개장에 매년 6만여명의 군산 지역 뿐 아니라 전북 인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는 군산의 대표적 여름 피서지인 야외수영장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상당 부분 평년과 다르게 운영된다.

우선 강도 높은 방역 규정을 적용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입장시 발열체크를 통해 상태 확인하고 문진표 작성을 통해 유증상자를 사전차단 할 뿐 아니라 KI-PASS(QR코드)를 통한 방문 기록 체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

이용방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예약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소통참여·통합예약시스템·알림마당에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단체예약은 전화로만 진행 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 삼기면에 도시가스 공급

### 22일 첫삽... 총 16억 투입, 2021년까지 단계별 보급

익산 삼기면에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된다.

익산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삼기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단계별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22일 삼기면(도마, 검지, 옥실)일원에 총사업비 16억(도비 3억4000, 시비 7억1000, 전북에너지서비스 5억5000)을 투입해 도시가스 주공급 배관망 총 4.7km 매설에 착공했다.

이번 공사가 2021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총 98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그동안 겪어왔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기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전북에너지서비스 마을 주민들 50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 공급 공사 착공을 축하했다.

특히 삼기면은 타 면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량이 없어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기공(기념식)을 준비한 삼기면 이장단은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장단은 "우리면민들의 수삼년 소망을 해결해 준 익산시에 감사하다"면서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매년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이 청정연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합의를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공사에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항중이며, 타 지역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22일 (주)삼익유기공 익산공장 기공식에 정현을 익산시장,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주)삼익유기공 이봉이 대표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 삼익유기공,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등지

### 프로바이오틱스 제조기업... 하반기 준공 · 20여명 고용기대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프로바이오틱스 제조기업인 (주)삼익유기공(대표 이봉이) 익산공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2일 열린 (주)삼익유기공 익산공장 기공식에 정현을 익산시장,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주)삼익유기공 이봉이 대표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고 밝혔다.

삼익유기공은 지난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4,139㎡(4,276평) 부지를 취득했으며, 여기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올 하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삼익유기공은 국내 최초로 유청분말을 생산한 분말제조 전문기업으로 오뚜기 등 중견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유산균 생산 노하

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틱스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하여 유기공 전문에서 식품·바이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 공장 건립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흔쾌히 투자 결정을 한 이봉이 대표와 기업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100년 후에도 전세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식품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삼익유기공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